

'외식하는날' 먹방 관찰예능 신흥강자 '눈도장'

스타 외식 훑쳐보기 · 먹방 · 스튜디오 토크

'불맛 3종 세트' 선사해 뜨거운 호응 얻어

강호동 김영철의 '외식하는 날'이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새로운 강자로 눈도장을 찍었다. 지난 11일 9시30분에 첫 방송된 SBS PLUS '외식하는 날'이 스타 외식 훑쳐보기와 찹쌀 지극 먹방에 웃음 폭발 스튜디오 토크까지 '불맛 3종 세트'를 선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것.

'외식하는 날'은 스타들의 외식에 참견하는 새로운 형식의 관찰 리얼리티 토크쇼 2MC인 강호동 김영철을 비롯해 돈스파이크 모자(母子), 흥윤화X김민기 커플, 김지혜X박준형 가족, 프로호날라 음악작가 배순탁이 출연했다.

특히 이날 첫 방송에서는 흥윤화 김민기 커플과 돈스파이크 모자의 생생한 외식 현장 훑쳐보기가 펼쳐졌다. 스타들의 사적인 모습을 엿보는 것은 물론 찹쌀을 자극하는 음식들의 향연과 스튜디오에서의 웃음 만발 토크가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다는 평이다.

먼저 흥윤화 김민기는 귀여운 커플 먹방을 선보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엄마 미소를 짓게 했다. 특히 다이어트로 최근 23kg 감량하며 화제를 모은 흥윤화는 활영 날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저팅 데이'로 삼아 그간의 한을 풀어 웃음을 자아냈다. 흥윤화는 김민기가 늦자 "1분 늦을 때마다 1인분 추가"라며 귀여운 협박을 하는가 하면, 김민기와 주머니 받거나

하며 '삼겹살 현정승'을 즉석에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지나가며 보이는 모든 식당에 "못 가서 미안해요"라며 사과를 하는 등 끊임 없는 웃음을 선사했다. 김민기는 "이렇게 좋아하는 윤화가 좋다"며 꿀 떨어지는 눈으로 이에 호응하고 데이트를 기념하며 커플 사진을 남기는 등 9년차에도 변치 않은 애정을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출연자인 돈스파이크는 이른바 '현실 모자' 리얼리티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모자는 아침에 눈을 떠 뺑자고 뺑자고 돈스파이크를 뽐내던 둘은 이후 어색한 정적을 이어가며 현실감을 더하기도 했다. 또 '하니문 베이비'라고 주장하는 어머니와 이를 의심하는 돈스파이크의 열띤 토론은 스튜디오 출연자들까지 박장대소 하게 했다. 두 사람은 평소 잘 먹지 못하는 것을 먹고 싶다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브런치로 외식을 시작했다. 돈스파이크는 단골집에 수많은 음식을 주문하며 행복해 했고,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는

허를 내두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상반된 모습으로 재미를 선사했다.

두 스타들의 외식 훑쳐보기는 다채로운 음식들의 향연과 남다른 먹방으로도 이목을 끌었다. 흥윤화는 고기에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맛에 대해서도 생생한 묘사로 군침을 삼키게 했다. 또 사랑한다는 증거라며 갈빗대를 양보했다가 3초 만에 탈환하는가 하면, 둘의 사진 감상에 빠진 김민기를 보여 빨리 고기부터 먹으라고 재촉해 웃음을 터트리게 했다.

돈스파이크는 브런치 카페에서 스프와 샐러드부터 버거, 팬케이크 등 대부분의 메뉴를 주문하며 대식가다운 위엄을 뽐냈다. 스프에 파자를 부셔 넣고, 팬케이크에 시럽 병을 뽐내며 먹는 방법에서도 차원이 다른 먹방을 선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흥윤화는 "오빠는 정말 과학이예요"라고 감탄해 웃음바다를 만들기도 했다.

또 스튜디오에서의 토크도 풍성한 볼거리를 더했다. 흥윤화와 김민기 커플의 풍낭풍낭한 먹방 데이트를 보던 김지혜는 "결혼 13년 차 딸 같았어"라면서 전혀 없는 내 VCR이 격



정된다"고 평했고, 이에 돈스파이크는 "전 엄마랑 43년 됐다고 보태 줘주세요"라고 답했다.

또 돈스파이크는 수입의 많은 부분을 식비에 지출하는 이유는 "본능"이라고 답하거나, 여행의 이유도 "먹으러 간다. 맛집이랄까 그 곳의 실상과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흥윤화 등을 감탄케 하며 웃음을 전했다.

한편 '외식하는 날'은 스타 부부, 자발적 혼밥러, 연인 스타보다 더 유명한 스타 가족 등 재미 폭발하는 스타들의 실제 외식을 통해 먹방에 공감을 더한 진짜 이야기를 담는다. 연예계 대표 미식가로 손꼽히는 대식가 강호동과 만능 입담꾼 김영철이 MC로서 스튜디오를 책임지고 돈스파이크 모자, 흥윤화 김민기 커플, 박준형 김지혜 부부, 배순탁 등

의 출연진들은 VCR과 스튜디오를 오가며 각자의 특별한 외식 취향을 전한다.

세대를 다양한 조합에서 오는 재미, 가성비와 가성비 비교, 푸드쇼 공개까지 성공적인 외식 안내서로서 기대를 모으며 순항 중 있다. 매주 수요일 밤 9시 30분 SBS Plus 목요일 밤 11시 SBS funE, 토요일 밤 12시 SBS MTV에서 방송된다.

적수 없는 '김비서'...지상파 수목극 3%대 처참한 성적표



지상파 시청률이 처참해졌다. 3%대 시청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1위와 2%대 시청률을 기록 중인 최하위 드라마까지 상황이 좋지 않다.

1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1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이리와 안아줘' (이아람 극본, 최준배 연출) 25회와 26회는 전국기준 3.7%와 4.7%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방송분(4.1%, 5.3%)보다 0.4%포인트, 0.6%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치지만 동시간대 1위

에 해당한다. 지상파 드라마의 꽃이라 불리던 수목드라마 시청률이 과거의 영광에 비해 반 토막이 안되는 수준으로 변모한 데 이어 3%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 지상파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포인트다.

2위와 3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수목극 2위인 KBS2 '당신의 하우스헬퍼' (김지선 극본, 전우성 연출)의 시청도 다르지 않다. 5회와 6회는 3.0%와 4.3%를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3.2%, 4.0%)보다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중 SBS '혼남정음' (이재운 극본, 김유진 연출)은 2%대 시청률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25회와 26회는 각각 2.8%와 2.9% 시청률을 나타냈다. 2%대 시청률을 기록 중인 '혼남정음'은 첫 방송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자랑하는 중이다. 1회 시청률은 5.3%. 그러나 이

후 조금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며 현재는 그마저도 반토막이 났다.

지상파 드라마들이 힘을 쏟는 이유에는 월드컵 중계 등 외부적 요인도 있을 터다. 실제로 월드컵 기간 동안 지상파 수목극은 생중계 방송으로 인해 결방이 잇따르며 피해를 고스란히 안았다. 현재 1위를 기록 중인 '이리와 안아줘'의 출연진 또한 잦은 결방 여파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고, 시청자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그보다 더 크다. 스토리의 연결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결방 여파만으로는 시청률 하락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지상파 드라마들의 이야기 전개가 케이블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도 원인이라는 얘기다. 특히 단순한 스토리가 여러 번 반복되며 사랑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드라마들은 최근 시청자들에게 매물처럼 외면당하고 있는 중. 한 관계자는 "혼남정음"의 전개 방식에 대해 "전개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그 속에 알맹이는 없는 느낌"이라며 "시청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제작진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꾸짖기도 했다.

지상파 드라마들이 현재 참패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백선우 최보림 극본, 박준화 연출)일 것. '김비서' 11회는 케이블 위성, IPTV를 통합

한 유료플랫폼 전국 가구 기준 평균 8.7%, 최고 9.8%를 기록. 지상파 포함 동시간 드라마 1위와 케이블과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tvN 타깃 2049 시청률 역시 평균 6.4%, 최고 7.6%로 11회 연속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는 중이다. 케이블 시청률 중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 자릿수 시청률 역시 목전에 두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SBS 수목극으로 논의했던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불발돼 tvN으로 자리를 옮긴 작품. 이를 두고 볼 때, SBS 입장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김비서'의 모습이 달갑게 느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비서'는 '혼남정음'의 4배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비서' 역시 단순 연애 스토리에 불과하지만 이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김민서(박민영)와 이영준(박서준)의 과거 트라우마일 것. 여기에 매회 달콤한 엔딩까지 선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기 요인이 설명된다.

지상파 수목극은 여전히 부진의 상태다. 새로운 신작 드라마들이 줄지어 준비되었지만, 위기를 타개하고 물러오는 케이블 드라마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 SBS 새 드라마 '진애하는 판사님께'와 MBC '시간', 그리고 현재 방송 중인 KBS2 '당신의 하우스헬퍼'가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무엇을 가지고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와이스, 전무후무 '9연속 홈런' 날렸다



그들 트와이스가 데뷔곡부터 이어진 '연속 홈런' 기세를 또 한번 이어간다. '댄스 더 나잇 어웨이 (Dance The Night Away)'로 나흘째 음원차트 1위를 유지하며 통런 체제를 구축했다.

트와이스는 지난 9일 오후 6시 두번째 스페셜 앨범 '댄스 더 나잇 어웨이'를 발표하며 3개월 만에 초고속 컴백했다. '댄스 더 나잇 어웨이'는 트와이스의 9인 9색 청춘을 담은 앨범포 팝 댄스곡으로, 휘성이 작사에 참여해 색다른 감성을 선보인 노래다. '댄스 더 나잇 어웨이'는 공개 이후 7개 음원차트 퍼펙트 윙클을 기록한 이후 나흘째 차트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여름과 잘 어울리는 청량한 댄스곡을 들고나온만큼, 무더위 예고된 향후 시기에도 잘 맞아 통런이 전망된다.

한터차트 기준 음반 판매량 역시 이틀만에 7만장 판매고를 돌파하며 '5연속 초동 10만장 돌파'의 기록을 앞두고 있다. 무난하게 이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만에 낸 스페셜 앨범임에도 트와이스 파워가 여전한함을 볼 수 있다.

음원과 동시 공개된 '댄스 더 나잇 어웨이' MV는 12일 오전 8시 기준 276만뷰를 돌파하며 9연속 1억뷰 돌파 신기록 수립에 청신호를 쏘았다. 여기에 '하트 세이커' MV가 11일 2억뷰를 돌파하며 또 하나의 기쁨을 안았다.

트와이스는 첫 여름 컴백, 7월 대선, 초고속 컴백 등 각종 부담감 속에서도 또 한번 역대급 성적을 일궈내며 전무후무한 '9연속 홈런'에 성공했다. 음악방송 컴백 이후 무대를 보여준 이후 순위는 더욱 굳건해졌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 트와이스는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처음으로 여름에 컴백하게 됐는데 언제나 이렇게 많은 사랑 주시는 우리 팬들을 비롯한 많은 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사 써주신 워싱턴 선배님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와이스는 "무더운 날씨지만, '댄스 더 나잇 어웨이'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 여름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오늘의 운세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음력 6월 1일)



▶**띠**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님, 쥐, 뱀 띠 탓에 신경이 예민해진다. 양보하려면 확실히 하라. 둘 다 잡으려다 본인만 외로워진다. 3, 4, 8월생 초조하고 불안하면 날개 꺾인 새 신세가 되니 나를 찾으라. 과음을 삼가라.



▶**띠** 마음속에 묻어 두지 말고 털어놓고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 기, 천, 오 성씨는 무엇인가를 잡으려 뱀뱀을 치는 격이다. 내 것은 내가 챙겨야 강 건너 물 보듯 하다가 남에게 빼앗긴다. 남에 손에 들어간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님을 알라.



▶**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과 갈등을 빚으니 마음의 안정 찾지 못한다. 1, 4, 9월생 서로 존경해야 남에게도 존경받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기본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면 인생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중심을 지켜나가야 한다. 음주 운전하지 말라.



▶**띠** 주관이 뚜렷하고, 소신대로 행하는 것은 좋으나 한 번쯤 아내와 의견을 일치해 행할 때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된다. 나, 천, 음 성씨는 애정에 불만을 담아 두지 말고, 문제점을 상대와 대화로 풀라. 길이 있다.



▶**띠** 지금껏 여러 어려움에 처했지만, 새롭게 도전하는 일에 승부를 건다면 대성할 수 있다. 2, 8, 11월생 남에게 줄 것이 많다면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라. 그래야 신용을 지킬 수 있다. 5, 7, 11월생 보장은 절대 금물이다.



▶**띠** 5, 9, 12월생 하는 일에서 벗어나려고 하나 자신감이 없다. 현재 움직이지 못하는 위치에 있으니 용기를 내야 겨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라. 나, 오, 천 성씨 사랑하려고 든 스쳐 지나가는 여성들보다 진정한 사랑 찾기에 힘을 기울여라.



▶**띠** 시작이 좋으나 동업 상대를 기만하면 결국 신용도, 사람도 잃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 9, 11월생 나, 천, 음 성씨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으나 단 곳에 신경 쓰다 하는 일까지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관세주까지 따르니 언행을 조심하라.



▶**띠** 오, 표, 자 성씨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 무한히 노력할 때구나.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환경과 조건을 염두에 둔 채 일자리를 찾으라. 태만한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을 수 없다. 남에게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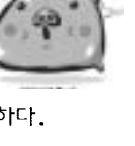
▶**띠** 노총각, 노처녀에게 경사가 있겠다. 행운을 잡으라. 친구 도움으로 짝꿍이 생긴다. 3, 6, 12월생 동쪽으로 가면 길하고, 서쪽으로 가면 입자 있는 사람을 만난다. 나, 나, 음 성씨 상대가 강해도 성급히 포기하지 말고 지혜로 대항하라.



▶**띠** 사랑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남의 눈 피해야 할 부정한 만남이라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라. 2, 7, 11월생 연이나 연상 이성에게 눈먼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사는 사람과 대화의 장을 열어 자녀에게 건강 문제에 좀 더 신경 쓰라. 투기적인 것은 삼가야 한다.



▶**띠** 2, 6, 11월생은 꾸준한 노력파다. 다만 중간 수가 있으니 인내하면서 추진하라. 그러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때로는 인복이 없다면 한숨을 쉬지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라. 자, 표, 음 성씨 중 목재, 제분업 종사자는 서서히 풀린다.



▶**띠** 큰 그릇은 스스로 갈고 닦으며 시련을 극복할 때 이뤄진다. 쉽게 부와 명예를 가지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길이 있는 인생 가치를 논할 수 없다. 7, 9, 11월생 북, 서쪽이 길하다.